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4호 [주간 제2598호]

주제 109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음력 윤4월 2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총진군의 불길기 새차게 타탄지고 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6월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내각부총리들과 일부 도당위원장들, 위원회, 성책임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첫째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방성있게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고 인민경제의 주타격전선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이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내세우고 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



을 제시한 후 그 사업을 본격화하여온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위원회에서 화학공업발전의 핵심사항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비료생산능력조성문제를 취급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벌려나갈 구상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의 과학기술적담보와 경제효과를 재검토심의를 한 과학그루뵈의 사업정형과 화학공업부분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화학공업발전의 새 활로를 열어놓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분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비료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보고 대하며 이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서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비로 공업을 창설하는데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존화학공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당면목표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원료에 의거하는 화학공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추는것이 주체화된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의정과 둘째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의정으로 현행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규약상문제들을 일부 수정하고 당규약개정안에 반영할데 대한 의견을 심의비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 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 힘있게 추진

삼지연시를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하여 펼쳐나선 건설자들이 3단계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천수백동의 건물골조공사를 결속한데 맞게 여러종의 마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토대를 갖추어 방대한 건설대상을 빠른 시일에 완공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이

와 함께 지대정리도 적극 진척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연속공격, 계속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지휘일꾼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에서 기수가 되어 내달리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성, 중앙기관련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려단에서는 공적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돌격진이 과감히 벌어져 대부분의 려대, 대대가 맡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미장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한편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형조건이 불리한 개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3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4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구획을 형성함으로써 지난 5월 공사수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민족의 생산 백두산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려일 로력적위훈을 세우는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는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찬양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미래의 혁군으로 여세게 자라나도록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칭송하고있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6월 6일은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는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도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하시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천품으로 지나신 절세의 위인을 명도자로 모시고있어 조선의 학생소년들은 나라의 왕으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떠받들리우고있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에 참가할 평범한 근로인민들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사랑의 비행기가 날고 특별렬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현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소년단 대표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이란히 앉으시어 음악회를 관람하시고 거듭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는 숭고한 화풍은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위원장의 품속에서 조선의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만민을 메혹시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모에서 특히 감동되는것은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라고 격찬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있어서 제일 기쁜 순간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며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

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이다.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며 두볼도 다독여주시고 그들의 귀속말로 다정히 들어주시는분이 바로 그들이시다.

국제사회는 새 세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위원장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 있다.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블레즈》, 《로스스까야 가제타》, 《레베레 TV방송》, 《RT》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넷신문 《에지나야 프레야》, 인터넷잡지 《렘취》를 비롯한 로세야언론들도 《김정은령도자와 아이들》, 《미래를 사랑하는 령도자》 등의 제목으로 절세위인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신문 《콤소몰스까야 브라우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어서 책가방과 교복, 교과서와 학습장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매음쓰신다. 따라서 온 그 사랑이 있어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과의요양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아이들사이의 혈연적유대를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피나 세인을 감동시키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두팔을 벌리고 스투럼없이 달려가 안기는 품은 바로 김정은동지의 품이다.

본사기자







# 후대사랑이 어린 《소나무》 책가방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은 《소나무》 책가방!  
 오늘 아침도 집집에서는 등교길에 오르는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소나무》 책가방을 매워주며 공부를 잘하고 오라고 당부를 하였으리라.  
 걸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 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소나무》 책가방이다.  
 모양과 질 좋은 가방에 동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머령이 나귀, 금시라도 숲의 향기가 풍길듯 싶은 가방상표...  
 몇 해 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손

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을 들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었다.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고 그이께서 마디마디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 그때부터 아이들의 가방생산을 위한 시간이 흘러갔다.  
 기어이 제일 좋은 우리의 것을!  
 아이들에게 제법으로 만든 학습장이며 가방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안겨주어 그들이 자기의 것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빛내이는 앞날의 주인공들로 키우시려는 것이 그의 숭고한 뜻이었다.  
 그 사랑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때로는 도안가들의 안목을 띄워주시기 위해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페이지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 보내 주기도 하시었다.  
 자신께서 몸소 가방도안가, 제작자가 되어서 보아 주신 도안은 무려 450여건에 달한다.  
 주체 103(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 105(2016)년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어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만든 멋진 가방을 보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흐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고 멋진 가방을 안겨주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그이께서 아이들의 가방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 쓰시었으면 주체 106(2017)년의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찍으면서 올해 자신의 행군길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겠는가.  
 오늘도 평양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공장을 돌아보시고



## 맛과 향기가 독특한 오일 건강음료

공화국의 오일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제품들이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날이 갈수록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키모와 요구르트, 우유, 과일단독, 영양음, 에네르그활성음료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수도 다양하지만 호두에스키모, 검은참쌀에스키모, 누룽지맛에스키모를 비롯하여 매 품종에 따르는 가치

수 높은 헤아릴수 없다. 공장의 음료제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감과 기호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하여 공화국인민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속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  
 오늘도 오일건강음료 종합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다종다양한 건강음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 록색건축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거리

공화국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러명거리를 돌아보고 록색건축기술의 생동한 교과서와도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러명거리는 록색건축에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들이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에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되었다.  
 러명거리건설을 받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살림집과 봉사건물, 공공건물에 록색건축기술을 받아들여 에네르그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러명거리에는 태양열을 축

열하였다가 리용하는 광열형 동풍식태양열난방기술이 도입되어있다.  
 그리고 지열냉난방체계를 리용하여 해마다 많은 에네르그를 절약하고있다.  
 일명 《도시남새공장》으로 불리우는 수경재배에 의한 지붕온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러명거리의 여러 공공건물과 유치원, 탁아소에 건설된 지붕온실에서는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러명거리에 가면 남향쪽에 놓인 창문의 생김새가 특이한 소학교건물을 볼수 있다.  
 이 창문들에는 여름철에 햇빛이 방안에 직접 비쳐들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차광장치를 빛선반

## 《우리의 것이 제일입니다》

### ◆ 선경철감공장을 찾아서 ◆

의 전자요소들로 구성된 폭발구역감시조종체계, 분산형조종체계, 비상정지보호체계를 개발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완성한 지난해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전해들을수 있었다.  
 철감생산 및 포장작업반에 들어서니 혼합기를 운전하는 혼합공들과 포장로보트에 의하여 철감을 포장하는 포장공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곳에서 단량체를 유량중합시켜 전색제(수성, 유성)를 만든 다음 색깔과 안료들을 혼합시켜 수성철감과 유성철감을 만들어 용기에 포장하고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철감은 빛견딜성이 약한것으로 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자력경쟁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는 이들이 있어 원료, 자재로부터 설비와 완제품, 포장용기에 이르기까지 질 좋은 아크릴계철감이 평방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철감들을 마르면서 제일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넘쳐있을 사람들과 더욱 아름다워질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본사기자 리철민



## 과학기술전당에서 새로운 자료보급체계 개발도입

다기능화된 현대과학기술 보급기지, 정보보급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자료를 보다 신속정확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해당 과학기술보급거점들과의 정보공유를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할수 있는 자료보급체계를 새로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전당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도서관부터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해당 자기기술의 구조와 국가방어에 의한 전승규약을 표준화하였다.  
 송호철

과학자들은 전당에서 구축하는 모든 과학기술자료들과 각급 과학기술보급단위들의 정보수요를 주체별, 장서별로 관리할수 있는 주체별로 파일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완성하였다.  
 새로운 자료보급체계가 개발도입됨으로써 종전의 자료전송방식에 비해 운영에서 신속성과 적응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료관리에서의 통일성이 보장되고 보다 실용적이며 종합적인 전자장서관리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보급체계에 의해 과학기술전당에 집결된 최신자료들이 표준화된 전송규약과 해당 부문,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보급거점에서 요구하는 보급주기와 내

